커뮤니티 아트로서 무용의 진화
- 개념 및 다원화된 양상에 관한 연구 -

최 경 희*

목 차

Abstract
Ⅰ. 서론
Ⅱ.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본 커뮤니티 댄스
1. 커뮤니티 댄스의 지향점
2. 커뮤니티 댄스의 실천 전략
Ⅲ. 커뮤니티 댄스의 다원화된 양상
1. 일반인 대상
2. 사회적 일탈자
3.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evolution of dance as community art.
- A study on the concepts and pluralistic aspects -

Choi, Kyung-hee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raw conceptual definition, grasp aspects of community dance in Korea, and suggest plans of development for sustainable it.

For this study, several arguments about community dance is reviewed through literature, and analyzed practice cases of it by newspaper, on-line searching.

Community dance is a way of mutual communication that participants express, understand their life through the arts. It is more concerned with the process than the result. because it lays stress o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bout individual or community. Besides the process-oriented, it emphasize experience to reveal creativity, opportunities for the masses to enjoy the arts,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교수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initiative of participation, understanding of others, work together with the regional community or institution.

The aspects of community dance in Korea were considered in terms of three areas.

It include revitalization and unifying of a community(aim at general people like older women, teenager, mother and daughter etc), treatment and revival of a person of deviation(aim at reformatory, homeless person), improvement of the rights of the social weaker, neglected(aim at the disabled, the aged, soldiers etc).

Community dance helps learner to prepare basic ability as a social member. It is possible for them to build self-esteem, cultivate communication skill, develope critical judgement, creative thinking as well as health, fitness.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improve social cohesion through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Through all of this, I suggest the plan of development of community dance as community art.

First, when researchers plan a programme, they decide a place, man to educate. And then they should diagnose and grasp needs, problems to solve exactly. It is starting point of the project and has influence on progress direction, goal, activity, method of management.

Second, though various dance is used in community dance, basically, it aim at activity to reveal personal creativity, promote spontaneity. The activity means not merely acquiring skill of dance, but wide understanding for it as a part of culture & art which is intimate in life. It can be build up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tudy like music, theater, visual art, literature, history etc.

Third,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learners about the region and explore connectivity between educational space and programme, a cooperative network for mutual assistance of the local arts organizations, creative space, members of organizations is formed.

Fourth, community dance in korea spread with pluralistic aspects, but the support is towards for specific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for it to expand new areas which reflect demand of another vulnerable groups.

finally, a consistency of supports, a variety of funding is required. In order to run a sustainable community dance, different resources should be made as corporate and private sponsors as well as public funds throug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key words: community art, community dance, a plural aspect, a case study,
주요어: 커뮤니티 아트, 커뮤니티 댄스, 다원적 양상, 사례 고찰

Ⅰ. 서론

최근 국내 예술교육 동향의 한 특징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지방자치 문화예술센터를 통한 창작 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문화를 매개로 도시를 재생하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문화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연대감을 강화하며 더불어 문화와 사회·경제·환경 등 영역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공주형, 2012:22).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창작공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창작공간으로는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홍은예술창작센터와 잠실창작스튜디오 등 모두 9개에 달한다. 서울시 창작공간은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 공간과 창작 여건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부여하며 창작과 향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창작공간에서는 연극, 무용, 시각예술, 문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 예술단체 및 프로그램 참가자를 통한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관심은 지역의 문화예술센터 외에 문화예술회관(두산 아트센터, 충무 아트홀, 강동 아트센터, 동숭아트센터 등), 도시관리공단 산하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문화예술지원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라는 복지적 측면이 강화되는 상황과 맞물린다(장지영, 2013년 2월 12일).

한편 지역 시설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아트가 생성됨에 따라 커뮤니티 댄스 또한 다원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와 관련해 논의된 사항으로는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정립 및 실천방향, 사례연구에 관한 것으로 김미령 외 1인(2012), 김옥희(2012), 김태연(2011), 김채현(2010, 2011), 문영(2012), 최경희(2011), 한혜리(2012a, b), 황정옥(2012), Cheesman(2011), Houston(2010), Houtera(2011)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무용가가 춤을 다르게 혹은 새롭게 접근하는데서 비롯되며, 일정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춤의 사회적 확산과 실천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김채현, 2011:40). 또한 커뮤니티 댄스는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보는 것에 시작하며, 이러한 의식은 지역사회나 시민 참여 기반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한혜리, 2012b:11). 이와 같은 커뮤니티 댄스가 지닌 가치와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은 커뮤니티 댄스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 된다. 커뮤니티 댄스가 행해지는 지역, 대상, 내용 등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 양상 또한 다양해 커뮤니티 댄스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 방향이나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공통된 논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논의된 사항의 합치점을 이끌어내는 일은 커뮤니티

댄스와 관련해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해 주며 지속실천 가능한 커뮤니티 댄스의 발전적인 제안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최근 들어 커뮤니티 댄스에 관한 관심은 예술가, 교육자, 행정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획・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커뮤니티 댄스에 관한 개념이 정립돼지 않은 채 움직임의 본질, 극장 춤에 대한 반성과 성찰, 창작에 대한 관심 등을 근거로 접근이 되고 있어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교육적 가치와 성과를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아트 및 커뮤니티 댄스에 관한 제 연구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커뮤니티 댄스가 추구하는 지향점 및 실천 전략에 관한 공통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신문기사, 홈페이지 및 웹진 등에 제시된 사례와 현황을 토대로 한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의 양상을 파악하고 커뮤니티 댄스의 의의 및 역할,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Ⅱ.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본 커뮤니티 댄스

1. 커뮤니티 댄스의 지향점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라는 용어는 공동체 예술이라 직역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커뮤니티 아트 목표는 연구자 및 그 추진 주체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재생, 사회교정, 세대 간 소통과 갈등 해결, 주거환경 개선, 문화 증진과 교육 등으로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 직업, 연령 그리고 지역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커뮤니티 아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는 엘리트주의에 바탕을 둔 소수를 위한 고급 문화예술이 아닌 다수가 주체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창작하여 공동체의 현안을 드러내고 해결하며, 문화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커뮤니티 아트는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이며 예술보다 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다((김희선 외 1인, 2011:94-95). 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만남과 교육, 예술과 삶, 상상과 현실, 과정과 결과의 순환 구조 속에서 커뮤니티 아트는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공주형, 2012:27).

한편 커뮤니티 아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생활방식을 주목하고 동반자로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자신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사, 문화, 생태, 현실적 쟁점 등에 관여하게 한다(안인기, 2011:285). 학습자는 예술을 매개로 삶을 설명하고 표현하며 이해하므로, 예술을 통해 삶 속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커뮤니티 아트에서는 지역 및 대상 등에 다라 다양한 교육목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참여의 능동성, 소수가 아닌 다수 참여자의 예술 향유,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인, 주어진 환경 및 타자에 대한 이해, 과정 중심 등의 내용 등을 주요 사안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살펴 본 주요 개념은 무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 커뮤니티 댄스의 의미와 관련하여 김채현(2011:40-41)은 커뮤니티 댄스를 공동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예술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적 춤 활동으로 정의하며, 춤 예술의 사회적 확산과 실천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의 여러 계층이 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능동성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참여자의 능동성, 실천현장에서 허용되는 창조적 역동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춤 표현의 주체가 되게 하여 예술의 실행 범주를 확장시키고 무용가의 전문성을 공공의 자산으로 재인식시키는데 기여한다.

한혜리(2012b:16, 11)는 커뮤니티 댄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무용으로 상호소통하고 교제하는 교육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용의 공공성과 관련해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보므로, 이러한 의식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지역사회나 시민 참여 기반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황정옥(2012:60-61)은 예술가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생 및 상호공존에 대해 언급한다. 예술가는 커뮤니티 댄스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은 커뮤니티 댄스에 참여와 실천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공동체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인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개인의 자발성과 참여성은 생활 속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된다.

문영(2012:81)은 커뮤니티 댄스를 지리적 근접성 및 공동의 관심사에 의해 조직된 공동체의 무용 향유 및 창작 활동으로 정의하며 그 특성으로 목적성, 전문성, 개방성, 다양성, 자발성, 지역성을 들고 있다. 제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무용의 공공성과 사회적 실천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다수 대중의 참여적인 무용형태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성, 참여자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살펴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댄스의 선두 주자격인 영국의 경우 라반과 라반 제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지역 공동체 예술 운동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발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커뮤니티 댄스는 참여적인 무용형태로서, 모든 사람들은 춤을 출 권리가 있고 춤을 출 수 있다는 민주적 원리에 기초한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걸을 수 없거나 시각적으로 손상이 있는 노인들과 같이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움직임이 서투르거나 둔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모두가 무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댄스가 지향하는 바로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각 인간이 지닌 창의성의 발현을 기리며 존중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댄스 예술가들은 기술적 완벽함을 성취하기 위한 전통적 교수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창조를 위해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며 구조화하는 방식을 조장한다. 또한 커뮤니티 댄스는 포괄적인 실천을 지향한다. 첫째; 참여자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춤을 출 수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참여기간 동안 집단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작업방식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이다. 서로 다른 실행자들은 서로 다른 작업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연루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요구와 소망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댄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특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된 초기 커뮤니티 댄스 운동은 무용이 참여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능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커뮤니티 댄스 실행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춤 출 권리가 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 생물학적 혹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거나 소외된 사람들과 작업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수의 참가자들은 춤을 계속해서 출 것이며, 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Houston. S, 2010:15-17).

커뮤니티 댄스의 구체적인 효능으로 참여자들은 신체적·기술적 능력 향상, 집중력과 책임감, 자신감과 소통능력 향상, 창조적 표현과 비판적 성찰능력 증대, 예술형식에 대한 이해 증진 등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집단 및 공동체의 경우 참여자간에 응집력이 형성되어 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한다(Hutera. D, 2011:21-22).

2. 커뮤니티 댄스의 실천 전략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 댄스는 참여적인 무용형태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 혹은 공동의 현안이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가 무용을 향유하며 무용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수많은 교육적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획된 커뮤니티 댄스에는 특정한 가치와 의도, 운영방법이 포함된다(Cheesman. S, 2011:30). 커뮤니티 댄스 실행자는 기획 시 가치와 의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그 목적을 명확히 하며, 공동체를 배경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김채현 2010:52). 커뮤니티 댄스의 가치와 의도·구체적인 목적·상세화된 목표는 참여자의 요구 및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분명한 방향 및 목적 설정은 기획된 커뮤니티 댄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사회적 맥락을 연계시키는 상호적 학습을 실현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 아트에서는 인간의 생활방식을 주목하고 지역 및 환경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이해, 공동체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도록 한다. 공동체의 역사, 문화, 생태, 현실적 쟁점 등은 삶과 밀착된 주요한 수업주제가 될 수 있으며 토론과 의견교환, 조사 연구 및 역사적 맥락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수업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다. 이에 수업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안인기, 2011:288).

한편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창조활동이 핵심요소이기는 하나 한 가지 무용이나 종류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광범위한 무용실습(예술행동의 핵심과정인 감각하기, 알기, 이해하기, 창조하기, 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법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협업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한혜리, 2012b:16).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인 공동체에 관한 이해 뿐 아니라 커뮤니티 댄스를 실행하는 행위자들(예술가, 교육자, 행정가, 시설 및 기관 관계자, 참여자 등)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황정옥, 2012:65).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댄스가 건강과 복지 등 개인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강력한 공동체와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안건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나아갈 명확한 노선과 방향,

가치와 목적에 대한 공통된 합의, 관계자들 간에 이해 공유, 평가기준 공유, 자원관리에 유연성과 자유로운 변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습 및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 목표와 최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야 하며, 참여자간의 차이와 다양한 학습양식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참여의 질은 경험에 대한 수용성과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헌을 이끌 과제에 대한 집중력, 성찰, 위험 감수, 변화의 기회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Hutera. D, 2011:21).

춤은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포용을 장려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무용을 포함한 예술 속에서 찾게 된다.

Ⅲ. 커뮤니티 댄스의 다원화된 양상

국내에서 행해지는 커뮤니티 아트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성격, 프로그램의 실행자 혹은 대상에 따라 방법과 내용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관계지향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해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목표(서울, 인천, 안양 등 지자체가 설립한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둘째; 교도소 수감자·정신질환자·노숙자 등 사회적 일탈자의 치료 회생을 목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도소와 소년원 수감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셋째; 특정 사회집단의 정체성이 갖는 다름과 차이를 알림(다문화 공간에서의 공동체 미술), 넷째;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리를 증진시키려 함(용산 국제빌딩 4구역의 재개발 지역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평택시 대추리 미군기지 건설지의 철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김희선 외 1인, 2011:95).

본 논문에서는 지역예술센터 및 예술기관과 연계해 실행된 커뮤니티 댄스 사례 중 신문기사, 홈페이지 및 웹진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일반인 대상, 사회적 일탈자 대상,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대상

1) 중년여성

2011년 춘천아트페스티벌에서는 중견무용가 장윤정을 중심으로 중년여성과 소통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그룹 <춤추는 여자들>이 결성되었다. 프로젝트에서는 춘천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친 워크샵의 결과물로서 '당신은 지금 봄내(춘천)에 살고 있군요' 를 공동 제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참가 여성들은 중년 여성으로서 겪는 삶의 권태, 외로움과 우울, 무기력 등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노래도 부르고 시도 낭송하고, 춤을 추는 복합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을 만들었다(윤지현, 2012년 7월 7일). 2013년 현재 3회를 맞이해 프로그램 및 공연이 계속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몸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상호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2년 중구문화재단 산하 충무아트홀에서는 지역밀착형 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로서 탄생한 것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춤추는 꽃 중년 프로젝트'이다. 춤 프로젝트를 통해 중년 여성들은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창조하는 예술가로 변신을 의도하였다. 프로그램을 총괄한 김윤진은 춤과 여성의 소외를 '룸 퍼포먼스'로 표현하였다. 주객이 분리된 공연에서 벗어나 대담과 관객참여를 포함하는 형식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6개월간의 워크샵 과정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계성을 탐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문영, 2012:87). 현재 이 프로젝트는 시즌 2를 맞이해 '춤, 수다'라는 부제로 진행되고 잇다.

한편 산업단지공단과의 협력으로 안산시화공단에서 생산품을 만드는 여성 CEO들이 커뮤니티 댄스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흥무용이라는 장르가 낯설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몸동작으로 표현하고, 나와 타인을 서로 발견하며 소통하는 방식이 흥미롭다(김태연, 2011:51).

2)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의 커뮤니티 댄스의 사례로 청소년 감성 키움 프로젝트 '상상학교'를 살펴 볼 수 있다. 상상학교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전문 예술가와의 예술제작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미적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며 각자의 소질 개발하는데 있다. 2012년에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CID-UNESCO)의 주관 하에 예술 강사 10인이 10개 청소년 시설(서울 소재 청소년 회관·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수련관)과 결합

하여 5-6개월의 커뮤니티 댄스 워크샵 과정에 이은 공연물을 제작·발표했다. 참여한 예술 강사들은 현역 무용단의 대표 또는 무용수들(리케이 무용단 예술감독 박경은, 홍댄스컴퍼니 대표 홍혜전 및 LDP의 박준희, 안애순 무용단의 오윤지 등)로서 이들은 소품 및 게임을 통해 움직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타인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과정을 진행하였다(정기자, 2012년 10월 10일).

청소년 대상의 또 다른 사례로는 두산 아트센터 상주단체인 안은미 댄스 컴퍼니의 '사심 없는 댄스'를 들 수 있다. 정해진 공간과 규칙에 갇힌 청소년들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교실, 길거리, 눈썰매장 등에서의 청소년 움직임)에 담아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했다.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몸과 움직임을 탐구 한 뒤 사회적 현상에 접근하는 무부먼트 리서치 방식으로 공연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밖에 일반인 대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주민 대상 홍은예술창작센터의 '몸, 좋다'(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 작가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댄스, 무용가와 주민의 소통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서대문구 내 초등학생 저학년과 성인여성, 55세 이상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똥자루 무용단의 '우물쭈물 움직임'(서교실험센터와 아르코 극장 협력 하의 성인대상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일반인들의 몸과 움직임, 창작과 표현과정에 대한 이해), 인천아트 플랫폼의 '엄마와 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해외 전문가 초청 전문가 워크샵의 일환, 엄마와 딸의 관계 이해와 소통을 목적), 서교예술실험센터와 똥자루 무용단의 '컬러 카니발'(움직임의 야외 버전,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를 목적) 등이 있다.

2. 사회적 일탈자

1) 소년원

사회적 일탈자의 치료와 회생을 목표로 하는 사례로서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소년원에의 춤 수업을 들 수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9개 소년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원되고 있다. 2005년 소년원 학교 학생들의 긍정적 사회복귀를 목표로 무용교육과정(한국무용, 창작무용, 재즈)을 개발하였고, 매주 정규과정으로 편성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무용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못난 낙오자로서 숨고 싶은 존재가 아닌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등 자신을 치유해 나가고 있다(김태연, 2011:51).

학생들은 강사들과 눈을 맞추고 친구들과 스트레칭 연습을 같이하며, 자기 몸을 달라지는 것을 자랑한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자아를 긍정적으로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케 되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이현정, 2006년 6월 1일).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범부처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결과, 9개의 소년원 중 춘천과 광주소년원에서 무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소년원 외에 사회적 일탈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댄스의 사례로는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3곳)와 약물중독 여성의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감호보호소(1곳)에서의 사례를 들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2) 노숙자

사회적 일탈자의 치료와 회생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발레 씨어터 상임안무가 겸 예술 감독인 제임스 전의 홈리스 발레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 주관 지역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홈리스 발레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숙자들은 발레 기본동작, 마임 등을 배우면서 위축되고 긴장되었던 자신들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른 자세를 통한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으로 인해 잡지판매 등 주어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유인경, 2011년 5월 6일). 2013년에도 매주 일요일 과천 시민회관 서울 발레 씨어터 연습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 중에는 빅이슈(잡지)를 팔면서 대학 관광학과에 진학하거나, 보일러 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는 서울발레 씨어터 공연(‘꼬뮤니께’, ‘호두까기 인형’)에 출연하여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노재현, 2013년 4월 23일). 수업을 통한 가장 큰 성과로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므로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3.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

1) 장애인

사회적 약자로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증진시키려 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 댄스를 들 수 있다.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 댄스는 2006년 지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며 시작되었다. 장애로 인해 소외받고 낮

은 자존감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매주 수업을 통해 자신감과 표현력을 기르며, 신체를 건강히 단련시키고 단체생활에서의 협동심과 인내를 보이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김태연, 2011:51). 2013년 현재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학교와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관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연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생태에 대한 감수성,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생태 감성 무용 프로그램" 에서는 신체와 감정에 대한 인지, 타인과 관계 형성, 단조로운 집단생활에서 비롯되는 지루함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김옥희, 2012:84).

2) 노인

사회적 약자로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증진시키려 하는 또 다른 사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의 공동 운영 하에 진행 중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꿈청)을 들 수 있다. 꿈청은 통합적인 예술체험 교육과정을 통해 노년층의 삶에 활력을 불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 노인 복지시설(노인종합 복지관 및 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및 문화예술기반시설(주민 센터,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2008년 8개의 자치구에서 8개의 단체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 25개의 자치구에 27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공모를 통해 선정된 27개 프로그램 중 무용분야는 7개의 프로그램이며, 기본적으로 통합예술체험 교육과정을 지향하므로 무용 외 음악, 미술, 문학, 국악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꿈청에서 노인들은 예술 창작 수업 외에도 희망하는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 나눔 활동, 노인 보조강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석가연, 2013년 4월 30일).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예술 향유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자가 된다. 나아가 문화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문화 봉사자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와 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 공모사업 외에 예술회관의 상주단체를 통한 또 다른 시도를 살펴 볼 수 있다.

두산 아트센터의 상주단체인 안은미 댄스 컴퍼니는 '춤추는 할머니(Dancing Grandm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을 돌며 220명의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았고, 이들 중 경북 영주와 전북 익산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정하여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공연에 참가하도록 했다. 아마추어 할머니들이 젊은 무용수에 게 뒤지지 않았던 것은

막춤의 개성 뿐 아니라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춤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다. 노인들의 존재와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가능한 이 공연은 노인을 향한 동정의 시선도 거두게 한다. 일상과 예술이 멀지 않음을 일깨워 준 작품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현대무용과 관객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누구나 춤꾼 되기에 기여했다(정진삼, 2011년 4월 2일).

3) 군장병

「2013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으로부터는 치유와 자신감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관계성 회복과 자립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 노인 외에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부대 지원 사업은 군대조직에 대한 적응력의 향상과 장병 상호간의 단결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김창선, 2006년 8월 1일). 최근에는 주 5일제 실시와 함께 대두된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보장 문제와 군대내 인권과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군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정된 교육 장소는 육해공군을 합쳐 무려 180개이며 이중 15곳의 부대에서 군장병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혹은 무용을 포함한 통합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이상의 제 사례를 통해 한국 내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는 참여 대상, 내용 및 활동, 실행 장소 등에서 다원화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댄스는 지역 예술회관 및 축제 등에서 예술가를 자체적으로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여성 복지부·국방부・법무부 등의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의 지방정부 주최 하에 지역자치 예술센터가 프로그램을 기획 공모하여 선정된 예술 및 교육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커뮤니티 댄스의 양상은 크게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지자체가 설립한 창작 공간(홍은창작센터, 서교실험예술실험센터, 충무로 아트홀, 두산아트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인 대상 커뮤니티댄스, 비행청소년・노숙자・약물중독자 등 치료와 회생이 필요한 사회적 일탈자를 대상으로 소년원, 비행청소년 예방센터, 치료감호보호소 등에서 행해지는 커뮤니티 댄스, 장애인・노인・군장병과 같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리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복지관, 부대 등에서 행해지는 커뮤니티 댄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무용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와 무용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몸과 움직임을 매체로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식하며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토록 한다. 또한 생활하면서 쉽게 간과하거나 놓쳐버렸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반성을 통해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며 서로 소통하는 것을 시도한다.

한편 발레, 한국무용, 창작무용, 라인댄스 등 다양한 신체 움직임은 참여자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도록 한다. 일반인들에게 전문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른 자세·유연하고 아름다운 몸·표현적인 신체에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매시간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도전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갖도록 한다(최경희, 2011:104).

참여자들은 무용을 포함한 예술의 향유자로서, 창조자로서 나아가 봉사와 나눔을 통한 문화리더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참여자들의 공동체 활성화, 권리증진, 치료와 회생을 목표로 자존감과 자신감 배양,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여 사회를 결속하고 융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다원화된 한 양상을 통해 한국 내 커뮤니티 댄스의 의의 및 역할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실천 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커뮤니티 아트는 특정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예술을 통해 삶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아트에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시 되어 예술 활동을 통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을 지향한다.

커뮤니티 아트에서는 참여의 능동성, 소수가 아닌 다수 참여자의 예술 향유, 주어진 환경 및 타자에 대한 이해, 과정 중심, 지역 사회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등의 내용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다룬다.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살펴 본 주요 개념은 무용과 무관하지 않다.

커뮤니티 댄스는 참여적인 무용형태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 혹은 공동의 현안

이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가 무용을 향유하며 무용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또한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무용의 공공성과 사회적 실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커뮤니티 댄스 안에서 무용은 더 이상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술가 또는 무용 교육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누구나 춤을 출 권리가 있다는 민주적 원리를 기반으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참여를 지향할 뿐 아니라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교육경험을 중요시한다. 한편 참여 대상자의 해결해야 할 문제, 요구 및 소망을 반영해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방법이 다양화될 수 있어 작업방식이 포괄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커뮤니티 댄스가 갖는 특성은 참여자 및 작업방식의 포괄성, 프로그램 방향 및 내용의 유목적성, 교육성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로서 참여자의 자발성·능동성·개방성, 지역에 근거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학문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요시 하므로 공조성이 강조 된다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댄스는 신체적·기술적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집중력과 책임감, 자신감과 소통능력, 창조적 표현과 비판적 성찰능력 등의 태도 향상, 예술형식에 대한 이해, 참여자간의 응집력 형성,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유도 등의 교육적 효능을 성취할 수 있어 공공기관 행정가 및 기획자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의도되기도 한다.

커뮤니티 댄스를 표방하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커뮤니티 댄스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통합(중년여성, 청소년, 엄마와 딸, 지역주민 등), 사회적 일탈자의 치료와 회생(소년원,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노숙자, 약물중독 치료감호소),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리 증진(장애인, 노인, 군장병) 등으로 분류해 살펴 볼 수 있었다. 제시된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자들은 몸과 움직임을 매체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며, 진지한 숙고와 반성을 통해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며 서로 소통을 도모한다.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참여자들의 공동체 활성화, 권리증진, 치료와 회생을 목표로 자존감과 자신감 배양,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여 사회를 결속하고 융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행해지는 커뮤니티 댄스는 다원적인 양상을 보이며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면에는 개념정립이 미흡한 채 다양한 의도로 실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 댄스는 가치, 목적,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참여자 및 대상에 따라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 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댄스의 발전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커뮤니티 댄스는 지역에 기반 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 참여자 간의 상호소통, 삶의 의미를 찾고 되새김, 삶과 밀착된 문화예술로서 무용의 이해를 추구하며 개인 및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첫째, 프로그램 기획 시 주관 기관 및 교육 대상자가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 요구사항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파악을 한다. 이는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추진방향과 목표, 활동 및 교육내용, 운영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탐구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다양한 무용장르를 교육내용으로 선택해 활용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자극하고 고무할 활동을 지향한다. 또한 삶과 밀착된 문화예술로서 무용에 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 통합예술 교육과정이 지향되고 있어 타학문(음악, 미술, 연극, 영상, 사진, 문학, 역사 등)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교육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지역 내 예술기관, 창작 공간, 기관의 구성원, 기관 내 운영 프로그램 등을 이해하고, 공조를 위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넷째, 국내의 커뮤니티 댄스가 다원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새로운 대상층을 발굴하여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내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사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회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프로그램 지원의 일관성과 재원 조달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중앙부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지만 년도 별 지원액은 해당년도의 프로그램 선정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 등의 공공기금 뿐 아니라 기업 및 민간 후원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댄스의 선도적 주자인 영국의 경우 1995년 커뮤니티 댄스 재단Foundation for

Communication을 통해 실기 예술 뿐 아니라 및 보건 및 장애 등 다양한 교육 분야를 포용해 사회 내에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무용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2009년 국립 커뮤니티 댄스 전문학교National College for Community Dance가 설립되어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무용교육원The Korea Dance Education Institute주관으로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영역으로서 커뮤니티 댄스를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행정전문가, 기획자, 예술가, 교육자 등에 의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양상들은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무용의 확산 및 사회적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의도되고 기획된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교육적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제화하기 위한 방법,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은실(2009),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현대미술과 미술교육”,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연구 7권 1호,** 157-172.

공주형(2012),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의 실천: 매직 미(Magic me)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Our Generations를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3권 6호**, 19-27.

김미령, 노경희(2012), “생명제한 선고 환우 대상 커뮤니티 댄스 기획 사례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권 제 2호**, 87-104.

김옥희(2012), “커뮤니티댄스 실행 모델 생태감성 무용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권 제 2호,** 71-86.

김태연(2011), “한국 커뮤니티 댄스(예술교육) 정책과 지원”, 제 4회 공연저널리즘 포럼 자료집, 국제무용협회, 50-51.

김채현(2010), “21세기 춤 환경과 커뮤니티 댄스의 가능성”,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45-54.

_____(2011),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댄스의 의미-춤의 공공성과 역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제무용협회, 제 **4회 공연저널리즘 포럼 자료집**, 40-41.

김희선, 정희순((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제 45권 1호**, 93-106.

안인기(2011), “미술의 사회 참여: 공동체 미술교육의 실천과 의미”,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2권 5호,** 2011 283-292.

문영(2012), “커뮤니티 댄스의 진단과 조망”,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 70권 6호**, 75-97.

최경희(2011),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힘-그 의의와 가치”,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제 3호**, 85-109.

한혜리(2012a),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

학회지 제 23집 1호, 41-57.

_____(2012b), “대학 무용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의 결합 모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집 제 2호**, 1-17.

황정옥(2012), “커뮤니티댄스의 문화예술교육적 실천 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집 제 2호**, 51-69.

Houston, S(2010), “Community Dance in the United Kingdom”,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2010년 한국종합예술학교 제 12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3-19.

Hutera, D(2011), “Dancing on a Strong Foundation: Community Dance in the UK”, 국제무용협회, **제 4회 공연저널리즘 포럼 자료집**, 20-23.

Cheesman, S(2011),“Facilitating Dance making from a teacher's perspective within a community integrated dance clas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2:1, 29-40.

검색자료

김창선(2006년 8월 1일), “[기획연재-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가다③] 군부대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웹진, http://www.arte365.kr

강경석(2012년 3월 22일), “지루한 중년? 탈출구는 Shall We Dance”,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20322/44948940/1

경기문화재단 웹진 똑똑(2012년 8월 30일),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밝힐 수 없는 무엇을 나눔, 룸 퍼포먼스>_김윤진”, http://communityart.co.kr/70145838117

노재현(2013년 4월 23일), “발레하는 노숙인, 벚꽃 엔딩은 있어도 인생의 엔딩은 없다”,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news/

박정민(2013년 6월 18일), “충무아트홀 춤추는 꽃중년 시즌 2 진행”,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

박향아(2011년 5월 3일), “몸짓과 눈짓으로 나눈 아주 특별한 대화, 커뮤니티 댄스 워크샵 <엄마와 딸> 그 안의 사람들을 만나다”, 아르떼 웹진, http://artezine.blog.me/90112738259

이현정(2006년 6월 1일), “네가 이렇게 예쁘구나-정심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안양소년원) 무용교육 탐방”, 아르떼 웹진, http://www.arte365.kr

유인경(2011년 5월 16일), “제임스 전의 아름다운 도전, 홈리스 발레 교육에 앞장선 서울 발레 씨어터 상임 안무가”, 스포츠 경향, http://sports.khan.co.kr/news/

윤지현(2012년 7월 7일), “몸으로 회복하는 중년여성의 삶과 아름다움-치유의 춤판 이끄는 장은정과 춤추는 여자들”, 한국춤문화자료원 웹진 춤누리, http://chumnuri2010.blog.me/100161856491

석가연(2013년 4월 30일), “2013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개강, 아세아 뉴스 통신, http://www.anewsa.com/

장지영(2013년 2월 12일), “커뮤니티 댄스 열풍의 이면”, 한국춤문화자료원 웹진 춤누리, http://chumnuri2010.blog.me/100179372353

정기자(2012년 10월 10일), “커뮤니댄스 워크샵, 10대 청소년들이 유쾌한 몸짓 ‘꿈!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imri333

정진삼(2011년 4월 2일), “노인을 위한 댄스는 있다. 안은미 무용단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http://indienbob.tistory.com/486

_____(2012년 3월 7일), “사심없는 땐쓰-불타는 금요일, 몸이여 나뉘어라!”,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http://indienbob.tistory.com/546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